

## 제 13기 차세대 건설리더 ESSAY

건국대학교 전지영

“이왕 들어왔으니까 버티봐라. 버틴다는 것은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미생, 오과장-

나에게 이번 아카데미를 버틴다는 것은 앉아 졸며 시간을 때우고, 수동적인 자세로 생활했다는 뜻이 아니다. 내 주어진 변화를 받아들이고 학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식과 지혜를 얻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아카데미가 끝나는 주의 어느 금요일 밤에는 동생을 붙잡아 놓고 평평 울기도 했다. 건축, 토목 공대생들 안에서 문과의 부동산학과 학생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동산학에 대한 이해와 배려없이, ‘여기는 뭘 배우러 왔냐?, 배울 것은 있냐?’라고 직설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많았다. 물론, 본인이 상처받을지 모르고 그냥 던진 말이었거니 생각은 했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담아두니 집에 돌아왔을 때는 스트레스로 남았다. 내가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하지, 비주류로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덜 받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왕복 네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수 없이 생각했다.

얼마 전 방영한, 미생의 장그래는 고졸이었고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았고 스펙도 없었다. 나는 공대생 아닌 문과생이었고 팀 내 유일한 여자였고 뛰어난 학벌도 아니었으며 게다가 통학이 왕복 네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부족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학생들과 섞여 한테 어우러져 팀 과제를 하는 것에 굉장한 이질감을 느꼈다. 두려웠다.

처음에 SD 과제를 할 때에는 SD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의견을 내지 못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팀원들이 과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다 먹고 남은 커피컵을 치웠고 쓰레기도 주웠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

이게 20년간 살아온 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것이다. 나는 배우러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알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마음 먹은 그 때부터, 내가 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저 팀의 한 일원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게 되었다. 팀 과제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던 차에 같이 일하던 팀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땀이 늘었다.” 이 한마디가 나를 격려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점이 나를 감동시켰다.

QUIZ도 내가 바닥일 것이라 생각했다. 구조공학을 배울 때 나오는 물리학은 매우 낯설었다. 모르겠다고 꾸념할 때 뒤에서 들리는 소리. ‘이해가 안 되면 물리책을 사서 공부해.’ 그 때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신에게 변명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앉아 열심히 퀴즈를 준비했다. 결국, 뛰어난 공대생들 사이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경제와 부동산학을 공부하며 이 세상 모든 건물과 부동산이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경제성’ 이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땅팔이’라고 말한다. 약장수와 같이 ‘사’자 냄새가 나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아는 사람도 많다. 약장수도 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파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기획하고, 평가하는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를 울게 했던 것은 현장이었다. 여기 나오신 모든 강사분들은 이렇게 말하신다. “요즘은 여자라고 월급 적게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도 우리 여자 취업 준비생들은 항상 불안해야 할까?

삼성역에 있는 파르나스 호텔 건설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견학을 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나를 안심시키던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이 미웠다. 4주 동안, 건설 사무소 근처만 지나가도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불편했다. 더 불편했던 것이 있다. 파르나스 현장에서 간이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시던 현장 근로자분께서 ‘여자가 여길 왜와? 나 소변 봐야 되는데’ 라고 하셨다. 분명, 내가 죄송한 상황이었지만 바지를 올리지 않고 그 상황을 즐기며 웃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나 혼자 담아두고 이해하기는 아직도 벅차다. 나는, 실력을 쌓고 유명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내가 일하는 직장과 업계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이제 더 이상 여자 선배님에게 ‘차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NCLA의 6주 과정에 있으면서 훈련소에서 나온 남자친구를 단 한번을 보았고 친구 단 한명 만나지 않은 채 과정에 열중했다. 그만큼 교수님들도 나에게 많은 지식을 하루하루 밥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얹어 수강생들의 입에 들어 붓으셨기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좋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값진 경험을 했던 좋은 자리였다.

내가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반성으로 이어졌다. 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다. 겸손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 NCLA는 그런 나에게 마치 ‘상경한 자식의 집에 오랜만에 들러 상태를 점검하러 오신 어머니’ 였다.

우리가 6주간 공부했던, 서울대의 슬로건을 조금 바꾸어서 나의 글을 마쳐보고 싶다.

‘누군가 건설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NCLA를 보게하라.’